

## News

### 고강도 규제에... 5대 은행 신용대출, 결국 감소세로 전환

머니S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706조 3,258억원, 전월말대비 0.49% 증가에 그쳐... 특히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9월말 7.29%에서 10월말 7.07%로 하락해... 한도 축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상환 유인책 효과

### 연말 선수요 우려에...은행권 대출 문턱 높이기 '경쟁'

뉴스1

금융당국, DSR 2단계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며 연내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선수요 크게 늘어날 전망  
시중은행 관계자 "12월에 선수요 많이 발생할 것"... 플랜B 또한 선수요를 부추기는 요인... DSR에 전세대출 원금 포함시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차주가 많아져...

### 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 감면

연합뉴스

IBK기업은행,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  
일부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대상... 관계자 "대출 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줄이고, 고객의 자발적 상환 유도"

### "이젠 은행서 퇴직연금 굴러볼까"...4대 은행, ETF 투자 길 연다

매일경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연내에 4대 시중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ETF 투자 가능... 퇴직연금 계좌 유치를 두고 은행·증권 간 대격돌 예상  
130조원에 이르는 은행 퇴직연금 잔고 지키기 위해... 2030 MZ세대는 펀드보다 ETF투자를 선호... 우선 IRP부터 ETF 매매 서비스 제공할 것

### 가계대출 DSR 규제 강화에 '영끌族' 보험 약관대출 관심 ↑

아시아투데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추가 대출 받더라도 원금을 뺀 이자만 DSR 규제에 반영... 올들어 8개월 간 9,000억원 가까이 증가 및 3분기 들어 증가세 급증  
가계대출 규제 강화되며 약관대출 쪽으로 풍선효과 급증 가능성... 일부 보험사는 약관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 증가세 조절에 나서기도...

### 1년 만에 250% '깡충'...코로나에 뜬 디지털보험

이데일리

코로나를 기점으로 온라인 보험 가입 비중 확대 및 디지털보험에 대한 중요도 증가...국내 금융그룹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들도 디지털보험에 투자 중  
보험업계 관계자 "디지털보험의 경우 소액으로 운영되어 수익은 나지 않지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루트"

### PEF 흠집내기? '콧' 짚어 'IPO 가이드라인' 엄포..."이러다 다 죽어"

머니투데이

한국거래소의 PEF 최대주주 기업만을 특정해 IPO 심사기준 강화한 것을 두고 업계 우려... 공모가 산정 및 배당 등 세부적인 면까지 개입이 과하다는 지적  
PEF만 특정한 형평성 문제, 거래소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IPO 시장 침체 등 예상으로 증권사들 반발

### '공매도 재개 6개월' 외국인 독무대...대량보유 모간 1위-골드만 2위

뉴스1

지난 6개월동안 공매도 거래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이 재개 전 50%대에서 70%대로 급증... 공매도 시장, 여전한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27일 기준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신고건수 302건... 그중 외국계 증권사 신고건수는 248건(82.1%)으로 대부분 차지... 모간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가장 많이 늘어...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